

전북금융타운 조성 관련 지역 상공업계 성명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지정,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가 전북금융타운 조성 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18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채택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상공인들은 최근 부산 상공회의소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북의 금융타운 조성에 대한 여론몰이식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 기관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반대 성명 발표는 99개의 공간을 가진 사람이 100

개의 공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또한, 지난 2009년 동북아 해양 파생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탄생한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형성된 금융타운 조성 목적과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북금융타운이 조성되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의 금융타운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세계 3대 연기금인 기금운용본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 국가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도를 중심으로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전북 금융타운 조성에 필요한 금융공공기관들이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며, “타 지역을 향한 여론몰이식 방해를 중단하고 정부는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와 차별을 받아온 전라북도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제3 금융도시 육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18일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전북금융타운 조성 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개발공사,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18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매출증대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시장 곳곳을 돌며 과일과 떡 등 제수음품을 구입했다.

또한,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미리 준비한 친환경 장바구니를 전통시장에 찾은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일회용품 사용지체를 홍보하며 친환경 경영 실천에도 앞장섰다.

행사가 끝난 후, 고재찬 사장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은 남부시장 상인회(회장 하현수)를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침체와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편, 고재찬 사장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양한 나눔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사랑의 쌀 전달식’ 열어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박병철 전북노조위원장은 18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준비된 ‘사랑의 쌀’은 농협은행 임직원들의 십시일반으로 준비, 이양재노인종합센터와 전주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되어 센터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됐다.

김장근 본부장은 “이번 추석에는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은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2018년 사회공헌 연간플랜을 수립, 농촌인솔통기, 사랑이 온기 나누기(현열운동), 사랑의 빵 나누기, 집고쳐주기, 임신후회원 표어관리 등 매달 정기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농어촌 공, 청년창업농 농지지원 설명회 열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2018년 청년창업농 추가선발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농공 전주, 완주, 임실지사(지사장 심덕섭)는 18일 2018년 2차로 추가 선발된 청년창업 농을 초청하여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농지행사업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이어서, 청년 창업농들에게 농지행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응답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영농경력 2년 초과 시부터는 생애 첫 농지 지원(3.3㎡당 4만5천원)

및 농지매매 지원(3.3㎡당 3만5천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은행과 함께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농들은 사업 참여 시 필요한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서류, 지원 한도, 농지은행포털사이트 물건검색 등을 문의하면서 농지은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심덕섭 지사장은 “청년창업농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과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통해 공사의 임무와 역할을 홍보했다”며, 농지행사업의 개별적인 내용과 2018년 추가로 선정된 청년창업농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태 기자

18일 무주군 명천마을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가 진행됐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농협 무주군 · 한국새농민중앙회, 취약계층 지원 · 환경 정화 활동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 농촌의 다양한 가치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무주군 한국새농민중앙회와 협력,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18일에 무주군 명천마을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이성희(사)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및 회원, 강동규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장 및 회원,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고령농가에 대한 도배, 장판, 도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꽃밭(약 27M) 조성, 마을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 단체인 (사)한국새농민중앙회가 중심, 농업인의 자발적 마을 가꾸기 추진모형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농협간 마을 가꾸기 협력 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성희(사)한국새농민중앙회장은 “농협과 함께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농민중앙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위해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하여 ‘환경 및 경관’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여, 농촌이 농업인에게는 깨끗한 정주공간과 생산공간,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캠페인 행사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전주시공동대표 (박성태, 한희경 전전북도의원, 박기수, 김정호)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8일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전체 회원들은 모래내 시장에서 명절에 필요한 장보기를 했다. 이강선 지능경제인연합사무총장은 “서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둘 모여 서로를 향한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면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빛을 내뿜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임규철 지능경제인단체총연합

회 전주시지부회장은 “요즘은 재수용품 등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많은게 현실이라며 전통시장 ‘상점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특성화된 상품 홍보를 통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인들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전주시 정책과 행정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